

기상청-손해보험협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손해사정 과정에서 재해 원인을 분석하는 기상감정 활용 확대 노력

기상청(청장 이미선)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번 협의체에는 기상청과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한국기상산업협회, (사)한국기상감정사협회,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여러 관계기관과 보험사가 참여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 원인 분석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과정에서 과학적 기상정보와 기상감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기상청과 손해보험협회는 ▲기상감정 활용 분야 발굴 ▲기상·기후 리스크 기반 보험상품 개발 확대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기상 산업과 보험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기상감정업과 보험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기상감정은 재해 피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기후위기 시대, 기상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상감정업을 비롯한 기상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기후위기를 겪을 때 국민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 이번 기상청과의 협의체가 기상정보를 활용한 정교한 보험 서비스 제공 등 기후안전망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붙임 기상청-손해보험협회 협의체 구성

담당 부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수희 (042-481-7460)
		담당자	사무관	이용자 (042-481-7454)
<공동>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책임자	부 장	박상조 (02-3702-9790)
		담당자	팀 장	이현희 (02-3702-8539)

